

정신이 드니 어둠 속이다.

아무도 없는.

방향조차 알 수 없고 이 곳이 실제 공간인지 아닌 지도 모를.

어딘가에 묶인 듯 사지가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분명 내가 스스로 취한 적이 없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자세였다.

어둠의 소름끼치는 고요를 찢으며 마른 장작에 불이 붙는 소리가 들렸다.

- 화르르르르르르르르륵—!!!

순식간에 밝아오는 뜨거운 빛과 함께 내 모습이 보인다.

어떤 이유에선지 전생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의 기억이 재연되고 있었다.

또 다시 난 십자가에 묶인 채로 화형대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모든 것이 달랐다.

내가 매달린 십자가는 순백의 뼈가 서로 교차된 구조물이며 발 아래에 쌓인 장작더미들은 빠짝 말라버린 시체들이다.

끝을 알 수 없는 밑바닥에서부터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장작더미처럼 마구 뒤엉켜 있던 시체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악마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꼭대기 위의 한 점.

십자가에 묶인 나를 향해 벌레들로 우글거리는 몸을
빠그덕 거리며 기어올라오기 시작했다.

제기랄!...

발버둥치며 벗어나려 해도 사지를 묶은 밧줄은 더 세
게 옥죄여 온다.

다가오는 공포는 도망칠 수 없는 나를 비웃으며 흥겨
운 장송곡을 부른다.

이번에도 나는 들이닥친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것인가...

전생의 죽음으로 다시 되찾은 삶이다. 또 다시 허무하게 잃지 않아.

어느덧 떼지어 버둥치는 살아있는 시체들의 꾸물거리는 손가락들이 내 발에 우후죽순 닿기 시작했다.

날 집어삼키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저 익마들과 그 너머에서 온 세상을 불태울 듯이 거세어 올라오는 불길 속에 갇힌 그 때.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어느 강대한 존재의 시선과 닿았다.

내 발 아래를 가득 메운 지옥의 불길 너머에서 한 겹

은 악마가 나를 노려보며 말한다.

- 이제야 날 찾아왔군... 좋다. 네 힘을 내게 보여라. 인간.

오래전부터 나는 구마대전을 일으킨 그 악마의 이름을
예배시간에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악신... 켈...라이안?...

천지를 흔드는 듯한 악신 켈라이안의 음성과 함께 내
사지를 뼈십자가에 묶던 밧줄이 특하고 끊어졌다.

아우성치는 시체들의 머리통과 뒷목을 내 두 발로 각각 즈려 밟으며.

지금 내 몸이 여섯살 배기의 어린 신체가 아닌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자유자재로 발휘했던 지난 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카스텔의 천재라 불렸던 16살의 모습임을 깨닫는다.

그와 동시에 내 두 발의 앞에서 우르르르!!! 하는 굉음과 함께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다.

- 파바바바아아아아아앗—!!!

그것은 악마의 마력을 정제한 검붉은 금속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수없이 담금질하여 만든 묵직한 룡소드였

다.

마검... 어찌구저찌구.

허공으로 산개하는 조각난 시체들 틈에서 나는 주저하지 않고 튀어 오른 그 마검의 검자루를 낚아챘다.

마검을 정자세로 움켜쥐고 머리 위로 들어올린 두 손 바닥이 타는 듯이 뜨겁다.

그러나 나는 더이상 그 감각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다.

오로지 내 앞을 떼지어 가로막는 이 무수한 악마들을 베어나가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 서걱! 서걱! 서걱! 서걱! 서걱! 서걱!서걱! 서걱! 서걱!
서걱! 서걱! 서걱!!!

내 검이 무자비하게 휘둘러질 때마다 악마들의 살점과
뺨가루들이 사방으로 부서지며 튀어나간다.

제단의 정점을 향해 솟구치던 불길들도 내가 전진해
나갈 때마다 더 높다랗게 거세어지며 사방을 둘러쌌다.

처음엔 무기하나 없이 비루하던 시체들이 화형대의 높
은 제단을 내려가면 내려갈 수록 점점 더 강력한 존재
들로 변해갔다.

징집병의 시체, 궁병의 시체, 경비병의 시체, 기사
의 시체, 성기사의 시체까지.

징집병의 시체들은 그냥 보이는 족족 베어 나갔다.

궁병의 시체들은 화살을 검으로 쳐내며 달려가서 하나 하나 목을 따버렸고 그 와중에 발목을 붙잡는 시체들은 발로 대가리를 밟아 으깨어 버렸다.

경비병의 시체들은 첫 합에서 녀석의 검을 흘린 다음 그대로 옆구리를 베어 넘기는 식으로 속전속결로 쓰러트렸고.

기사의 시체부터는 녀석들의 벽을 그냥 통과할 수 없었다.

한 번에 내게 달려든 세 구의 기사시체들이 내지른 검을 막고 있을 때.

다시 마주친 악신 켈라이안의 시선은 내게 말했다.

- 이 몸은 네게 검을 주었다. 그러니 네 힘을 내게 보여라. 인간.

손에 쥔 마검에 온 정신을 집중하며 세 구의 기사시체들을 떨쳐냈다.

전생에서 신성력을 사용할 때처럼 손에 드린 마검에서는 검붉은 악마의 마력이 솟구치고 있었다.

- 그래 그 힘이다. 이제부터 네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손바닥에서 시작하여 온몸으로 퍼져 나간 작열하는 감각을 느끼며 나는 다시 눈 앞의 기사 시체들을 징집병들처럼 마구잡이로 베어 나갔다.

이 광란의 질주의 끝에는 남녀 성기사의 시체 여덟 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순백의 판금갑옷을 두른 그것들이 내 앞을 다시 가로막고, 그 너머엔 악신 켈라이안이 미동도 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도 악신의 의지는 한결 같았다.

내가 가진 힘을 쥐어짜내 보이라는 것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이로 나와 성기사 시체들, 그리고 악신 켈라이안을 둘러싼 업화의 불길 속에서 나는 결의를 다졌다.

좋아. 보여주지.

마검을 통해 내게로 전해지는 악마력에 깊게 몰입할수록 작열의 통증은 더욱 뜨겁게 내 몸을 달군다.

허나 그 폭발할 듯한 힘의 용솟음에 터져 나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은 강대한 힘을 휘두를 때의 쾌감으로 전환되며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듦을 나는 지금까지 경험해왔다.

그때 먼저 내게 달려드는 성기사의 시체 한 구가 보였다.

- 좌아아아아아악—!!!

반응할 사이도 없이 내 검에 베인 녀석이 두 손목을
모두 잃고 비틀거린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녀석의 검은 선명한 신성력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오랜만이다. 이런 감각.

전생에 카스텔의 형제들을 검으로 찍어 누를 때 느꼈
던 그 쾌감보다도 더 지독한 열락(悅樂)이 몸 구석구
석에 스며든다.

과연 악마력... 지옥의 고통과 천국의 열락이 서로를
휘감는 뱀처럼 뒤섞인 채 온 몸에 전율한다.

나는 어느새 직감하고 있었다.

이 힘을 절대로 잊지 못하리란 것을.

- 쟁!!!

이번엔 내가 먼저 휘두른 검을 성기사의 사체가 검으로 막아냈다.

허나 놈의 검에 서렸던 신성력은 내 마검이 내뿜는 악마력에 중화되어 순식간에 빛을 잃고 말았다.

그 순백의 빛이 모두 사라진 순간.

- 서걱—!!!

내 마검에 깃든 악마력이 더욱 거세어지며 녀석의 검과 몸을 동시에 세로로 반 토막 내버렸다.

뒤늦게 바닥에 떨어진 부러진 칼날과 검자루가 공기를 울리고.

남은 여섯 구의 성기사 시체들이 동시에 내게로 달려들기 시작한다.

막을 틈도 없이 일제히 들이닥치는 그들의 검격 앞에서 나는 마검을 한껏 등 뒤로 젖힌 채.

그들 모두가 벗어날 수 없는 순간을 기다렸다.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힘을. 일시에 뿜어낸다.

여섯 자루의 검이 내 미간과, 관자놀이 목젖, 심장, 명치, 하복부로 동시에 찔러 들어오는 그 순간.

나는 마검에 모든 힘을 담아 앞으로 휘둘렀다.

- 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썩은 고기가 타 들어 가는 냄새를 일으키며 증발해가는 여섯 성기사의 시체가 남긴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나는 내 모든 악마력을 개방하여 일으킨 일격의 위력

을 두 눈으로 보았다.

그 폭발은 내가 서있는 자리에 운석이라도 쏘힌 듯 원형의 커다란 구덩이를 만들어냈다.

"허억... 허억... 허억..."

그 속에서 나는 구덩이의 가장자리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악신 켈라이안을 향해 마검을 겨누며 미친듯이 질주했던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 정도면 됐나?... 악신 켈라이안?"

내 도발을 들은 악신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주제도 모르고 시건방진 녀석이군."

순식간에 사라진 악신의 기척을 등 뒤에서 느꼈을 때.

- 좌아아아아아악—!!!

나는 어느새 내 가슴을 뚫고 튀어나온 마검의 검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크윽!... 괜한 허세를... 부렸다.

등 뒤에서 다가온 마신의 손이 내 턱을 붙잡고 고개를
거칠게 흔들었다.

"힘은 쓸만하나. 멍청하기가 그지없군."

그러더니 단 번에 내 가슴팍에서 마검을 뽑아냈다.

지금까지 내 몸을 지배하던 악마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크으으윽!!!"

가슴팍을 붙잡고 비틀거리는 내 앞으로 다시 순식간에 나타나서는 목을 한 손으로 붙잡는 악신.

그대로 나를 번쩍들어 바닥에 내다 쫓은 켈라이안의 살기어린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어질어질한 통증과 함께.

"인간이여. 언젠가 넌 나의 제물이 될 것이다."

나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다.

지금 난 악신의 그릇인 것이다.

"그러니 더 강해져라. 지옥의 진정한 군주인 이 몸의 힘과 권위에 걸맞도록. 그 동안 내가 힘을 빌려주겠다."

그 뼈속까지 시린 두 눈동자가 내 모든 시야를 지배하고 있던 찰나.

눈이 떠졌다.

"허억!... 허억!... 허억!... 허억!!!"

눈을 뜨니 익숙한 마법공방의 천장이다.

아공간의 특성상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도 분간이 되지 않았다.

뭐야... 꿈이었나?...

몸을 벌떡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니, 바닥에 쓰러진 목각인형과 사방으로 나뿜구는 촛대들이 보였다.

불현듯 신성력을 2성으로 높이려 기도를 올리다 악마에 둘러 온몸에 검은 악마의 각인이 새겨지며 고통스러워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맞아. 분명!...

헐레벌떡 윗도리를 벗어 던지고 몸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분명히 피부의 안쪽부터 타들어 가는 고통과 함께 새겨졌던 그 흉측한 악마의 각인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냐... 이럴 리가 없다. 이렇게 쉽게 사라질 게 아니었어.

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내 검을 들어 정신을 집중했다.

쓰러지기 전 내가 닿으려 했던 것은 여신의 의지였으나 이번엔 악신의 의지였다.

그러자 내 기억과 동일하게 심장에서 작열하는 고통이 시작되었다.

크으웃!...

꿈처럼 느껴지지만 꿈이 아닐 그 기억 속에서 이 고통 뒤에 찾아올 열락의 감각이 되살아나려 한다.

그와 동시에 내 몸을 살펴보자 심장에서부터 작열감이 퍼져 나가는 것을 따라 온 몸에 검고 구불구불한 악마의 각인들이 문신처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건... 내 몸에 악마력이 흐르기 위한 일종의 혈관이구나.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내 안에 깃든 악신의 힘이 가진 잠재력을.

검붉은 악마력이 깃든 검을 허공에 휘둘러 그 힘을 한 차례 분출해봤다.

- 화르르르르르르륵!!!

마치 불길처럼 번져 공기를 태우는 그 힘은 전생에 익혔던 신성력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신성력이 부정한 것을 태워 문자 그대로 소멸시키는 힘이라면.

이 악마력은 화마(火馬)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더 거세어지는 힘이라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한 번 더 시험해보자.

다시 한 번 악마력을 검에 깃들게 하여 이번엔 마법공방의 한 견에 있던 영혼석 상자에 내려 꽂아 보았다.

그러자 영혼석에 갇혀 있던 영혼들이 불붙은 악마력에 의해 삼켜지며 연기로 증발해 내 몸을 향해 되돌아 왔다.

새로 흡수된 그 마력들은 몸에 드러난 검은 각인들의 문양을 한 층 더 섬세하고 복잡하게 만들어갔다.

미약하지만... 내 안의 악마력이 더 강해진 것이 느껴진다.

새로이 얻은 힘에 만족하던 그 때.

나는 잊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상기했다.

아... 그럼 이 악마력은 대체 어떻게 숨겨야 하는 거지?... 천재로 찍히기 싫어서 검술에 재능이 없는 척하는 것도 답답했는데.

만약 제대로 숨기지 못한다면 이번엔 6살의 나이로 신성청의 이단심판관을 대면하게 될 터였다.

이미 날이 밝았을 지도 모를 일인데 어머니의 응접실을 가리키고 있는 마법공방의 문을 열고 성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골이 지끈거려왔다.

또 다른 신선한 방식의 낭패였다.

- 길 잃은 어린양, 끝 -